인용문 ‘a’와 ‘b’ 내용을 다시 간추리면 문화주의란, ‘인격을 가진 인간이 문화를 통하여 끊임없이 향상・발전하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c’는 문화주의에서 ‘도덕’이 실천적・윤리적 위상을 가졌음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돈화에게 사람을 부단히 향상진보시키는 문화의 위상과, 사람들에 대한 실제적 규범이 되는 도덕의 기능은 매력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로서는 문화주의의 도덕은 너무 정태적이어서 여기에 활동적・충동적 요소를 가미할 필요가 있었다. 사람과 문화 간에 놓인 거리감도 그가 가진 ‘상호동일성’에 맞게 수정되어야 했다. 그 결과로 도출한 것이 ‘사람성주의’였다. 여기선 ‘사람-문화(혹은 이상)’의 관계가 ‘사람-자연’의 관계로 바뀌었다. 이때 ‘자연’은 사람 외부에 있는 별도의 목적지가 아니라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순수함을 가리켰다. 출발지는 곧 도착지였다는 점에서 여기에는 ‘상호동일성’의 인식이 투영되었다. 다만 출발점이 현실의 인간이라면 도착지는 실재적 인간이라는 차이는 있었다. 이 격차로부터 끊임없는 실천적 노력의 동기가 발생한다. 그러한 실천에 적합한 논리로 이돈화는 ‘도덕’ 개념 대신 러셀의 ‘창조충동’ 개념을 끌어들였다. 대신 ‘도덕’ 개념은 사회적 층위에서 이기주의(=개인)와 이타주의(=사회)를 조화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바꾸었다.

‘汎인간적 민족주의’는 민족주의의 양면성에 유의하면서 사회사상적 층위에서 민족주의와 인류주의를 조화시키고자 한 노력의 산물이다.[58] 전자를 이기주의, 후자를 이타주의로 파악한 것으로 볼 때, 이것은 ‘사람성주의’의 도덕 개념이 가진, ‘이기-이타’에 대한 조정 역할을 사회사상 방면에 확대・적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당시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상호 경쟁・갈등하던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때 민족주의의 대립

58) 『개벽』에서 ‘범인간적 민족주의’는 “역사상 완고한 민족주의를 배척하고 전세계의 민족을 동일한 인류라 하는 평등적 조건 하에서 각 민족이 각기 자연한 상태 하에 공동평등의 행복을 受하자 함이라”고 규정되었다((필자미상)(1923), 「汎人間的 民族主義」, 『개벽』 31, p. 8).

항으로 제시된 '인류주의'는 사회주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赤子주의'는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적 차이화 맥락에서 제시되었다.[59] 이돈화는 여기서 "純物質論者의, 「心理는 物質의 幻影」이라 한 標語는 心理의 一面을 正確히 看做한 代身에, 他 一面에 潛在하야 잇는 非物質的 創造心을 忘却한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그의 논설 전체를 읽어보면 '순물질론자'는 맑스주의자를 가리켰다. 적자주의는 '상호동일성' 인식에 관한 내용은 아니고, '활동주의 도덕'이라는 실천적 층위에 상응하는 내용이었다. 여기서는 버트란드 러셀의 창조충동론이 '사람성주의' 단계보다 더욱 강조되어, 과거에 대한 과감한 부정과 비판의 메세지는 무유주의(無有主義), 재생주의(再生主義), 생혼(生魂), 초월, 충동 등의 표현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적자'(赤子)라는 은유로 표시되었다.

충동적·활동적 요소의 강조는 실천적 층위에만 그치지 않았다. 1여년 뒤 그는 「생명의 의식화와 의식의 인본화」라는 논설을 발표하였다.[60] 이 글에서 그는 '사람성주의'가 가진 '사람-자연' 구도를 벗어나 '사람-생명' 구도를 제시하였다. 즉 사람과 생명을 동일시한 것이다.[61] '사람성주의'에서는 '산야전원적(山野田園的) 자연'과 '사람성자연'이 구분되었고 양자를 종합한 개념으로 '대자연'이 언급되어 조금 복잡하였는데, 이제 그것은 모두 '생명' 개념으로 일원화되었다. 생명은 '충동·본성'과 '의식'의 결합태이기도 했다.[62]

---

59) 여기서 '赤子'란 어린 아기를 가리킨다. 이돈화는 적자주의를, "다시 새로 낫스니, 過去는 모른다는 態度로 一切 過去를 否認하야 보는 主義이다"라고 설명하였다.(李敦化(1925), 「赤子主義에 돌아오라, 그리하야 生魂이 充溢한 人種國을 創造하자」, 『개벽』 55, p. 6)

60) 이돈화(1926), 「生命의 意識化와 意識의 人本化」, 『개벽』 69.

61) 이 '생명' 개념의 등장에 베르그송의 영향을 언급하는 연구자도 있지만, 이 시점의 글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다만 1931년에 출간한 그의 저서 『新人哲學』에서 베르그송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

62) 이 논설이 '상호동일성' 인식을 '생명' 개념으로 재구성하면서 '사람성주의'를 갱신하였음에도 '주의'라는 특권적 이름을 갖지 못한 것은 조금 의아하지만, 이는

4. 일본 '종교철학'의 전유(專有)와 소거(消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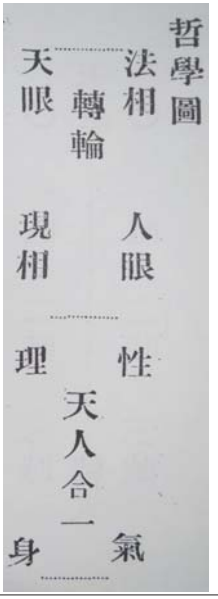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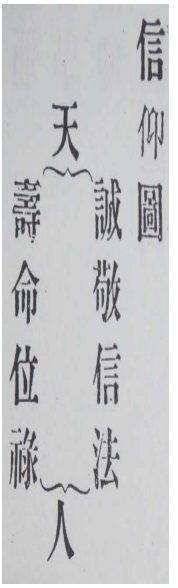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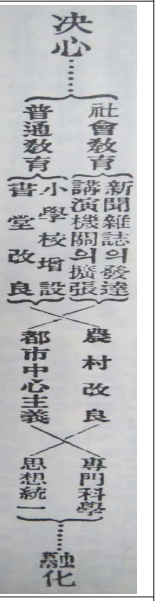
2, 3장에서는『개벽』주체의 형성에 사용된 '상호동일성' 인식이 천도교의 '인내천'적 사유와 관계있고, 실천방면의 '활동주의 도덕'에서는 '도덕' 개념과 '활동·충동' 개념이 사용되다가 나중에는 '생명' 개념으로 나아갔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상호동일성' 인식과 '활동주의 도덕'이라는 실천 방침은 일본의 '현상즉실재론' 철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다.

그 직접적인 연관성을 살펴보기 전에 천도교 종교사상에서 서구 근대의 '철학' 지식이 끼친 영향을 살펴보면, 그 시점은 '천도교'가 성립된 190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에는 중앙교단이 주도하여 교리서(敎理書)들을 많이 편찬하였다. 가장 대표적인『대종정의』(大宗正義, 1907)에서는 종교를 신앙과 철학, 그리고 제도로 구성되었다고 보았는데, 유독 '철학'에 대해서만 '인과 천의 관계'로 설명하였다.[63] 이와 유사하게『성훈연의』(聖訓演義, 1907)에서도 '영통'(靈通), '철학', '신앙'에 대한 서술이 중심 내용이었다. 여기서는『대종정의』와 달리 세 차원 모두 '천과 인의 관계'로 파악하였는데, 삼자는 관계설정 도식에서 <그림 2>와 같은 차이가 있었다.

문제는 이 '철학도'가『개벽』에 실린 '신문화건설의 도안'과 유사하다는 점이다.『개벽』4호의「신문화건설의 도안」에서 이돈화는 조선 신문화건설의 구체적인 절차를 설명한 뒤 그 내용을 간추린 도식을 <그림 2>의 '도안'(d)로 제시하였다. 이를「성훈연의」의 '철학도'(b)와 비교하

『개벽』이 폐간 시점에 임박한 사정 등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개벽』폐간 이후에도 이돈화는 자신의 사상을 계속 밀고나가 '水雲主義'를 주어로 하는『新人哲學』을 출간하였다.

63) "신앙은 天이 天을 遇한 者오, 철학은 人이 天을 見한 者오 제도는 人이 人을 見한 者니"(『大宗正義』, 1907, p. 21 → 崔起榮·朴孟洙 편(1997),『韓末 天道敎 資料集』1, 國學資料院, p. 102)

『성훈연의』			『개벽』
영통도(a)	철학도(b)	신앙도(c)	圖案(d)
			

비고
- 『성훈연의』(1907), pp. 1-2 → 『한말 천도교 자료집』 1, pp. 235-236.
- 이돈화(1920. 9), 「신문화건설의 도안」, 『개벽』 4, p. 16.

[그림 2] 『성훈연의』의 '철학도'(哲學圖)와 이돈화의 '조선신문화건설의 도안'(조선신문화건설의 圖案) 비교

면, 양자의 기본 구도는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도안'(d)의 상・하단에 있는 '결심'과 '융화'를 제외하면, 양자 모두 두 갈래의 비교항이 세 층위에 걸쳐 있으며, 하나의 층위에서 다른 층위로 연결되는 방식이 모두 'X'로 교차되고 있다.[64] 이런 양상은 『성훈연의』의 '영통도'나 '신앙

64) '도안'(d)에서 '보통교육'과 '사회교육'이 있고 이것이 각각 '농촌개량'과 '도시중심주의'에 연결되며, 그것이 다시 '사상통일'과 '전문과학'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철학도'(b)에서 '天眼'과 '法相'이 각각 '人眼'과 '現相'에 연결되고 그것과 연결된 '性'과 '理'가 각각 '身'과 '氣'에 연결되는 구조와 흡사하다. 더욱이 '도안'(d)에서

도'와는 매우 다르다. 『성훈연의』의 편찬은 이돈화의 윗 세대 이론가인 양한묵이 주도한 것인데, 이미 당시부터 천도교 종교사상을 정리하고 해설하는 데 근대적 '철학'이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철학'의 활용은 1920년대의 이돈화에게로 이어졌다.

그런데 『성훈연의』의 '철학도'와 이돈화의 '도안'(d) 간에는 내용면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철학도'가 '천안-인안'(天眼-人眼), '법상-현상'(法相-現相)이나 '이-기'(理-氣), '성-신'(性-身) 등 사변적・사상적 내용을 다루었다면, '도안'(d)는 교육과 개량 등 매우 구체적인 사회현안을 다루었다. 이처럼 양자 사이에 차이가 나타난 것은 1910년대 말 일본의 '현상즉실재론' 도입과 밀접한 관련을 가졌다.

일본 메이지기 철학의 주류를 이룬 현상즉실재론은 현상과 본질・실재를 '상즉'(相卽)의 관계로 파악하며, 현상에 속하는 정신과 물질도 제3자인 실재에 의해 통일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입장은 '이원론적 일원론'의 사유를 가졌다고도 평가된다. 현상즉실재론과 천도교 종교사상 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필자는 선행연구에서 다음을 규명한 바 있다. 첫째, 이돈화는 1915년 5월경 이미 이노우에 테쓰지로(井上哲次郎)[65]의 저

는 두 번의 연결고리가 'X'로 교차되는 형식을 취하는데, 이 또한 '철학도'(b)에서 '轉輪'('회전하다'라는 의미)으로 표시된 것과 일치한다. 그 아래에는 '천인합일'이라 되어 있는데 『성훈연의』의 해설을 읽어보면 이 역시 理-氣, 性-身으로 연결되므로 사실상 '전륜' 형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미 위에서 표시해 놓았으므로 중복을 피하여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65) "이노우에는 니시 아마네(西周), 니시타 키타로(西田幾多郎)와 더불어 메이지철학을 대표하고 있으며(伊藤友信 外(1982), 『近代日本哲學思想家辭典』, 東京書籍, p. 62), 또한 '현상즉실재론'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주장하는 등 메이지시기 '현상즉실재론'의 대표자로 손꼽히고 있다(船山信一(1959), p. 102). 한편 그는 도쿄대학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교육칙어(敎育勅語)를 해설하는 『칙어연의(勅語衍義)』(1891)를 저술하고(井上哲次郎(1973), 『井上哲次郎自伝』, 富山山房, p. 30), 『교육과 종교의 충돌』(1893)에서 크리스트교의 비(非)국가주의적 성격을 비판하는 등 '국권주의적 관념론'의 입장을 가진 인물이다(船山信一(1959), 『明治哲學史研究』, ミネルヴァ書房, pp. 14～15)"(허수(2011), 『이돈화 연구』, p. 64 각주 86번).

서 『철학과 종교』(1915. 2)[66]를 통하여 현상즉실재론에 접촉하였다.[67] 둘째, 1918년 무렵부터 그는 현상즉실재론의 이원론적 일원론 도식을 '종교-사회'의 관계에 적용하여 종교적 사회개조론을 구상하였다. 여기서 이돈화는 현상즉실재론의 '본질-현상', 그리고 현상방면의 '정신-물질'에 대한 관계 설정을 각각 '종교-사회', 그리고 사회 방면의 '개인(이기)-사회(이타)'에 관한 관계 설정에 각각 대응시켰다.[68] 셋째, 둘째의 사실과 관련하여 이돈화는 이노우에 저서에 있던 '종교-철학-과학'의 구분법에 영향을 받아 이를 자신의 서술에 활용하다가 1910년대 후반-1920

66) 井上哲次郎(1915), 『哲學と宗教』, 東京: 弘道館. "『철학과 종교』에서 이노우에의 철학적 입장은 주로 전반부 11개의 장에 담겨 있고 그 가운데서도 특히 맨 앞부분에 있는 4개의 장에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중략: 인용자) ... 네 장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철학의 요구 및 장래'에서는 '철학이 왜 필요한가'를 종교 및 과학과 대비시키면서 언급하고 있고, 제2장 '유물론과 유심론에 대한 실재론의 철학적 가치'는 유물론과 유심론・관념론을 종합하는 '실재론'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3장 '철학상에서 본 진화론'에서는 기존의 진화론 인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제4장 '의지활동과 자아개념'에서는 좀더 구체적인 수준에서 의지와 생명 및 자아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이노우에의 현상즉실재론이, 현상에 대한 과학법칙으로서의 '진화론'과 실재에 관한 논리인 '의지론'을 상호 결합시키고자 했음을 염두에 둔다면, 각 장은 순차적으로 '철학 → 실재론(실재) → 진화론(현상) → 의지・자아(주체)'가 되어 그의 철학적 입장이 점차 구체적인 단계로 전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허수(2011), 『이돈화 연구』, pp. 112-113).

67) 이돈화 자신은 이노우에의 입장이나 저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명확하게 밝힌 바 없다. 그러나 대한제국 말기인 1907년에는 이미 이노우에가 자신의 저서에서 서양 문명을 물질문명으로 보고 일본의 정신 문명은 불교적인 것으로 보는 입장이 소개되고 있었다(禪師 一愚 金太垠(1907), 「三國 宗教略論」, 『태극학보』 7, p. 24). 그가 일본 도쿄에서 윤리학자 자격으로 孝 관념에 대해 강연한 내용도 소개되었다(文學博士 井上哲次郎 嘯印生 譯(1910), 「孝의 觀念 變遷에 對하야」, 『大韓興學報』 9, p. 46). 당시 이노우에는 이웃인 한국 식자층에게 그와 같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더욱이 『철학과 종교』라는 책은 천도교 이론가였던 이돈화의 관심을 끌었을 개연성은 충분하였다.

68) 그는 '종교'를 '정신상 위안을 구하는 절대관념'으로 보았고, '사회'를 '육체상 福利를 구하는 비교사상'으로 생각하였다.

년대 초반이 되면서 점차 서술방식에서 '종교-철학-사회'의 구분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여기서 '둘째'의 규명점으로 미루어볼 때, 1910년대 후반 이돈화는 '현상즉실재론'이라는 '철학'적 지식을 천도교의 종교적 사회운동 논리로 전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개벽』 초기 지면에서 『개벽』 주도층이 '신=인간'뿐 아니라 '사람=세계' 및 '개인=사회' 등 '상호동일성' 인식을 전개한 것도 이전 시기의 이러한 전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주의' 형성과정도 마찬가지였다. '사람성주의'에서 '도덕'으로 '이기주의'와 '이타주의'를 조화한 대목, 그 연장선상에서 '범인간적 민족주의'가 민족주의라는 '이기주의' 사상을 인류주의라는 '이타주의' 사상과 조화하고자 한 대목 등이 그 사례이다.

'활동주의 도덕'에서도 현상즉실재론의 영향은 뚜렷하였다. 이노우에는 자신의 저서에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작용은 의지활동이다'라고 하여 의지를 최우선으로 여겼다.[69] 이 의지 개념은 쇼펜하우어의 '의지'에서 비롯한 것으로, 욕동(欲動: Trieb)·충동을 핵심으로 삼았다.[70] 또한 사람을 부단히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의지활동이야말로 '생명활동의 토대'라 보았다.[71] 이런 충동적 요소는, 인격과 문화, 그리고 도덕을 중시하는 문화주의를 수용할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후경화(後景化) 된 채 러셀의 창조충동론 등에 반영되었지만, 3장에서 살펴본 대로 '적자주의'와 그 이후로 가면 '생명' 개념으로 더욱 강조되었다.

이처럼 『개벽』의 미디어 주체 형성과 지속과정에서 근대 '철학'은 내용과 형식에서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특히 일본의 '종교철학'인 '현상즉실재론'은 주요 개념과 이원론적 일원론 도식의 두 측면에서 『개벽』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그렇다면 이 종교철학을 도입한 이돈화의 글이나

69) 허수(2011), 『이돈화 연구』, p. 114에서 재인용

70) 허수(2011), 『이돈화 연구』, p. 123에서 재인용.

71) 井上哲次郎(1915), p. 153.

『개벽』에서 그것은 어떻게 소개되고 있었으며 이후 어떤 경로를 걸었을까. 현상즉실재론이 언급되는 대목은 다음의 세 사례가 대표적이다.

a. 일체의 현상은 실재라는 바다의 파도이며, 유한하고 상대적인 현상은 본래부터 무한하고 절대적인 것에 불과한 것 아니냐. 이것을 **근세철학에서는 現象卽實在論이라 부르도다.**[72]

b. 원리상으로 보면 唯物은 곧 唯心이오 유심은 곧 유물이 된다하는 것이니, 유심과 유물을 통하여 오로지 하나인 원리가 그를 지배하게 됨인데 吾人은 此 유일의 원리를 가리켜 실재라 하는 것이로다. ... 실재를 생각하는 관념상 두 가지의 추상을 그려둘 필요가 있나니 **하나는 現象卽實在의 관념이오 하나는 圓融永遠的 실재라 하는 것**이라. 현상즉실재라함은 우리의 眼前에 暎하는 萬有현상의 무엇이나 실재 아님이 없다 함이니 ... 원융적 실재라 함은 우주의 無始無終이 한가지로 실재가 된다하는 말이니 이를 다시 구체적 예로써 말하면 시간공간이 한가지로 실재가 된다하는 말이라.[73]

c. 순수철학상 고찰로 본다면 物心兩種의 이론뿐이 아니오 그외에도 실재론이라는 별종의 이론이 생겨왔다. **실재론이 무엇이냐하는 것을 一言으로써 말하면 정신과 물질의 두 현상을 제3의 원리에 의하야 통일하고저하는 철학이다.** ... 이제 水雲主義에서 말하는 至氣一元論이라는 것이 유물론이냐 유심론이냐 또는 실재론이냐 하는 것으로부터 말하자면 지기일원론은 확실히 실재론 편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74]

『천도교회월보』 논설(a)에서 이돈화는 '근세철학에서는 현상즉실재론이라고 부르도다'라고 하여 '현상즉실재론'이라는 용어를 언급하였다.

---

72) 夜雷(이돈화)(1919), 「默念論」, 『天道敎會月報』 104, pp. 8-9.

73) 이돈화(1924), 『人乃天要義』, pp. 97-98.

74) 이돈화(1931), 『新人哲學』, pp. 31-33.

『인내천요의』(b)에서는 단행본 체제에 맞게 이와 관련한 내용을 도식까지 인용하며 양적으로는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현상즉실재'라고만 하여 오히려 제한적인 용어로만 제시하였고, 그것도 '원융영원적 실재'와 병렬적으로 언급하였다. 1931년의 『신인철학』(c)에서는 거의 동일한 내용을 아예 '현상즉실재'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않고 서술의 주안점도 현상과 실재보다는 '실재론'이라는 철학적 입장에 대한 일반적 설명 및 동학사상이 실재론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두었다.

이처럼 이돈화의 글에서 '현상즉실재론' 철학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몇 차례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시간이 갈수록 그 언급의 정도는 약화되어 갔다. 시야를 확대하면 그 밖의 이돈화 글이나 『천도교회월보』 및 『개벽』 기사 전체에서도 '현상즉실재론'에 관한 언급은 보이지 않았고, 이노우에 테쓰지로의 이름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런 면모는 『개벽』에 소개된 여타 사상 및 사상가의 경우에 비하면 매우 이례적이었다. 이돈화의 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개벽』 초기에 소개된 서구 근대사상의 경우 구체적인 전거를 밝히진 않아도 창간호의 니체로부터 15호의 플로베르에 이르기까지 '누구의 무슨사상'인가는 명백하게 밝혔다. 이 가운데에는 『개벽』의 주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것도 있지만 단편적인 소개에 그친 것도 있다. 혹시 일본학자가 줄 거부감을 우려했을까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은 사례를 다음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宗教의 統一論은 현대를 통하야 동서 一般이나 이제 그 사상을 대표할만한 一意見을 擧證키 위하야 日本에 유명한 彼 浮田和民氏의 장래의 宗教論 一節을 紹介하건대 氏는 曰 ..."[75]
>
> "이 실로 人世의 최후종교로서 자처한 所以인저. 汎神觀的 又 實在的 종교가 何故로 人乃天的 종교가 되느냐 하면 吾人은 此에 別로 自家의 의견과 동일한 黑岩周六氏의 최후종교론 槪略으로 특히

75) 夜雷(이돈화)(1920), 「인내천의 연구」, 『개벽』 2, p. 67.

독자에게 소개코저 하노라. 氏는 曰"[76]

이노우에 테쓰지로의 종교철학이 다른 사상에 비하여 이돈화의 사상, 나아가『개벽』에 훨씬 커다란 영향을 끼쳤음은 살펴본 바와 같다. 이 때 '현상즉실재론'의 영향이 잘 드러나지 않은 채 갈수록 희미해져 간 사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개벽』주도층이 '현상즉실재론'의 흔적을 의식적으로 감추고 지우려 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 영향이 클수록 그 결과로 생성된 사상적 혼종성을 감추고 싶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현상즉실재론'의 도입과 '소거'(消去)는 자아 및 주체의 통일성, 즉『개벽』의 정체성과 이돈화의 '신인철학' 형성을 위해 필요한 조처였다고 할 수 있다.[77] '현상즉실재론'은 천도교의 종교적 사회운동을 위하여 종교의 층위와 사회의 층위를 결합하는 역할을 마치고 사라진 매개물이었던 것이다.

5. 맺음말

이 글에서는 일본의 '현상즉실재론' 철학이『개벽』의 탄생과 지속에 끼친 영향과 그 성격을 살펴보았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개벽』은 '문화정치'기 천도교가 주도한 종교적 사회운동의 간판 매체였다.『개벽』창간을 주도한 천도교청년층은 이미 1910년대 말부터 종교적 사회개조를 지향하였다. 그들은 두 가지 차원에서 자신들을 여타

76) 夜雷(이돈화)(1920),「인내천의 연구(續)」,『개벽』5, p. 48.

77) 이 글에서 사용한 '소거'는 이돈화 논설이나 사상의 '표면'에서 사라진다는 의미이며, 이돈화의 글이나『개벽』에서 '현상즉실재론'의 존재 자체나 역할이 완전히 소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돈화의 사상에서 '현상즉실재론'의 영향과 역할이 나타나지 않는 양상은 1945년 무렵의 저서에서 발견된다.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허수(2011),『이돈화 연구』, pp. 245-252 참조.

세력과 구별하였다. 과학과 경쟁의 폐해가 만연한 사회를 개조하려면 평화적 원리를 가진 종교가 나서야 하고, 종교 중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구(舊)종교 대신 새 시대에 걸맞게 '사상적 포괄성'을 갖춘 천도교가 적임자라는 것이다. 『개벽』은 '종교적 사회개조'의 지향이 물질화된 것으로, '사상적 포괄성'을 사회일반적 언어로 확보하는 것이 『개벽』의 주된 욕망을 이루었다.

『개벽』의 신체는 목차상의 위치와 기능에 따라 '계몽의 영역'·'소통의 영역'·'대중의 영역'으로 분할되었다. 발간 초기에 『개벽』 주도층은 '소통의 영역'을 빌어 사상의 자원들을 소개하였다. 다양한 서구 근대사조가 소개되었고, 이와 동시에 외래사조 수용의 구심점으로 '인내천'에 관한 논설이 연재되었다. 핵심공간인 '계몽의 영역'에서는 '인내천'의 종교적 관점으로 사회현안을 포괄하는 일이 이미 시도되었다. 인식의 측면에서 그들은 '신과 인간', '사람과 세계',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두 항들을 각각 '상호동일성'의 관계로 파악하는 한편, 실천의 측면에서는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을 '활동주의 도덕'으로 추구하였다.

그러나 종교적 관점에서 사회문제를 포괄하는 본격적인 노력은 '주의'(主義)의 형성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개벽』다움'을 만드는 것으로 『개벽』의 자아를 창출하는 일이었다. 핵심 중의 핵심공간인 '대표논설' 자리는 『개벽』적 자아의 산실(産室)이었다. '주의'의 형성에서 이돈화는 유행하던 주류사상을 비판적으로 흡수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 기준은 역시 '상호동일성'과 '활동주의 도덕'이었다. '사람성주의'는 '문화주의'의 향상·진보적 태도와 인격적 평등관을 수용하였으나, '인격-문화'간의 간극과 실천원리로서 '도덕'이 가진 정태적 측면은 지양(止揚)하며 형성되었다. '범인간적 민족주의'는 '민족주의'가 가진 양 측면에 유의하면서, 이기주의적 입장(민족주의)과 이타주의적 입장(인류주의)을 조화하였다.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적 차이화로 제시된 '적자주의'(赤子主義) 및 이와 연동된 '생명' 논의에서는 인식과 실천의 양 면에서 본능·충동의

요소가 더욱 강조되었다.

그런데『개벽』주체의 형성에 사용된 '상호동일성'과 '활동주의 도덕'이라는 지침은 일본의 종교철학인 '현상즉실재론'과 밀접한 관련을 가졌다. 이돈화는 이노우에 테쓰지로(井上哲次郎)의 저서『철학과 종교』를 통해 '현상즉실재론'을 도입한 후, 그것이 지닌 종교철학적 논의를 천도교의 종교적 사회운동을 위한 실천 담론으로 전유(專有)하였다. 인식의 측면에서 '현상즉실재론'의 '현상=실재'라는 입장은 '사회=종교'로 치환되었고, 현상 방면의 '정신=물질'이라는 입장은 사회 방면에서 '이기=이타'로 전환되었다. 그 결과는『개벽』의 '상호동일성' 인식으로 이어졌다. 실천의 측면에서 '현상즉실재론'은 욕동(欲動)·충동을 핵심으로 하는 '의지'(意志) 개념을 최우선으로 하였다.『개벽』에서 의식(意識)과 도덕을 중심으로 한 문화주의의 영향을 받을 때에 그것은 '활동주의 도덕'으로 제시되었으며, 이후 시간이 갈수록 충동 등의 요소는 더욱 강화되어 갔다.

이처럼『개벽』의 탄생과 지속에서 현상즉실재론의 영향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노우에라는 이름이나 저서의 전거를 밝히기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그 내용에 대한 소개도 소략해 갔다. 이는 다른 이론과 사상가에 대한 관례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었다. 이는『개벽』주도층이 '현상즉실재론'의 흔적을 의식적으로 지우려 한 결과로 이해된다. '현상즉실재론'의 도입과 소거는『개벽』의 통일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었으며, 이 점에서 '현상즉실재론'은 종교의 층위와 사회의 층위를 결합하고 사라지는 매개물이었다.

참고문헌

【자 료】

『개벽』(1920-1926).

『大宗正義』(1907).

『大韓興學報』(1909-1910).

『천도교회월보』(1910-1937).

【논 저】

박찬승(1992),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誠巖學人(1969), 「開闢誌」에 對하여－「開闢」의 影印本에 붙이어-」.

임경석・차혜영 외(2007), 『『개벽』에 비친 식민지 조선의 얼굴』, 서울: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조규태(2007), 「『개벽』을 이끈 사람들」, 임경석・차혜영 외, 『『개벽』에 비친 식민지 조선의 얼굴』, 서울: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崔起榮・朴孟洙 편(1997), 『韓末 天道敎 資料集』 1, 서울: 國學資料院.

최수일(2008), 『『개벽』 연구』, 서울: 소명출판.

허 수(2011), 『식민지 조선, 오래된 미래』, 서울: 푸른역사.

_____(2011), 『이돈화 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_____(2011), 「표상공간 속의 쟁투－『개벽』의 표지・목차 분석」, 『식민지 조선, 오래된 미래』, 푸른역사.

井上哲次郎(1915), 『哲學と宗敎』, 東京: 弘道館.

원고 접수일: 2014년 9월 27일
심사 완료일: 2014년 10월 20일
게재 확정일: 2014년 10월 30일

ABSTRACT

The Theory of Religious Social Movement in *Gaebyeok* and 'Japanese Philosophy of Religion'

Hur Soo*

In the 1920s, the young people of Cheondogyo published in the period of 'cultural politics' the first issue of *Gaebyeok* (meaning 'the dawn of the world') to realize their purpose of 'religious social remodeling.'

Gaebyeok was divided into three areas; 'enlightenment,' 'communication,' and 'general public.' Its leading members carried articles about modern Western thoughts and the doctrine of 'in-naecheon' (the equality of human rights) in the 'communication' part. And in 'enlightenment,' they spread not only both an idea of the world as the relation of 'mutual identity' and a practical plan of 'activist ethics', but also put out the 'doctrine of human nature' (*saramsŏng chuui;* 사람性主義), 'pan-humanistic nationalism' (汎人間的 民族主義), and the 'doctrine of Jeokja'(赤子主義).

In this process, the theory of 'phenomenon viz reality' (現象卽實在論) played a important role, but its presence gradually faded down thereafter. The Japanese theory played a role as a vehicle which helped combine the different two strata forming the unity of *Gaebyeok*, religion and society, and then disappeared.

* Hallym Academy of Sciences, Hallym University